

# 영암농협, 전동평 군수에 감사패

### 멜론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힘써



농협영암군지부는 지난 2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에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금번 감사패는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K-멜론의 사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감사패를 오정현 농협영암군지부장과 관내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농정철학인 내실있는 고품질·고소득 생명농

업육성을 위해 멜론 생산농가에 대한 토양환경개선, 공동선별, 육묘 및 포장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영암 멜론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결실로 2019년 전국 K-멜론 취급량 7,000톤 중 영암멜론이 1,248톤, 18.3%를 점유하여 전년대비 대폭적인 사업신장을 이루었고,

내수시장과 함께 수출농업 육성에도 힘써 대만, 홍콩 등지로 25회에 걸쳐 83톤(28백만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는 등 영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영암농협농협 멜론공선회(회장 송일월)는 2019년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우수 공선회상과 우수농업인상(문연후), 우수직원상(과장 최계두) 등을 수상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자로 추진한다

### 주차장 및 편의시설, 주유정비등 갖출 예정 600대 수용 가능 ... 27일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91,510㎡ 부지에 6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 식당, 수면실,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을 비롯해 관리동, 주유정비동 등을 갖추게 된다.

이들 위해 시는 오는 27일 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1년 까지 공영차고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시설 조성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122억 원을 전액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면 목포시는

시비 부담 없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목포시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 물류거점으로 목포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돼왔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며, 세부 공모지침과 제출서류 등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061-270-8293)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독립운동가 서훈 받지 못한 비운의 강진 사람들

### 제7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 성황 기준 완화해서 서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3.1 운동 100주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강진 출신 독립유공 서훈자는 만세운동을 포함해 51명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아트홀 소극장에서 강진군 주최로 열린 '제7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에서 순천대 홍영기 교수는 '강진독립 유공자 선양방안' 이란 논문을 통해 2019년 11월 현재 강진출신 독립유공자 서훈자는 총 51명으로 의병투쟁이 5명, 3.1운동이 12명, 학생운동 12명, 국내 항일 18명, 일본 방면 2명, 광복군 2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강진 사람들의 활발한 독립운동 참여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서훈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

으로 요구되고 있다. 강진 출신 3.1운동 관련 서훈자의 대부분은 1919년 4월 4일 강진 장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형, 김윤식, 김제문, 김현균, 김후식, 오승남, 오응추, 이기성, 최덕주 등 9명이 현재 서훈자로 결정돼 있다.

그러나 4.4 만세운동과 관련해 26명이 재판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박명옥, 김안식, 김현봉 등을 비롯하여 17명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기 교수는 "지금은 포상기준이 완화되어 미서훈자 대부분이 서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강진군에서는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을 신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권장했다.

독립 유공자들의 선양방안에

대해 홍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유물을 수집,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 문집류 등과 같은 전적류와 생전에 사용한 생활 유물 등을 발굴, 조사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강진지역 독립운동을 알릴 수 있는 자료집이나 개설서 등을 발간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특히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강진군은 이 분들이 속히 서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영기 교수의 논문외에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전남대 입선화 교수, 강진일보 주희춘 대표가 강진 내 독립운동사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무안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39개소 250여명의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노인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무안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 무안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노인복지(장기요양)서비스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종사자 교육, 한마음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웃음제조 배우기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열악한 환경

에서도 가족과 같이 어르신들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금번 행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 계시는 요양보호종사자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흥군, 민·관 합동 제설작업 협약 및 장학금 수탁

장흥군은 지난 2일 군상황실에서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사)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장흥지회(지회장 김기호)와 민·관 합동 도로제설작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군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약칭)건설기계 장흥지회와 사전협의 자리를 마련, 민·관 합동 제설작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기호 지회장은 지역에 봉사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굴삭

기 등 보유현 중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약이 성사됐다.

또한 군은 제설기, 삽포기 등 장비를 점검완료하고 친환경제설제 50톤, 소금 20톤, 모래주머니 2000개를 확보했다.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 비탈길 등 취약지역 9개소에 모래주머니 500개 설치를 완료했다.

군 건설도시과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반의

태세를 갖추고 상황에 대비하겠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리며, 올 겨울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사)건설기계 장흥지회는 장흥군 인재육성(보리밭뒤/장흥고 밴드부) 장학금으로 사용하여 달라며 2백만원을 기탁했다.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